

“기대를 현실로”... 눈보라 가르는 광주FC 열정

김호영 감독, 모교 금호고서 훈련
두 팀으로 나눠 미니 게임
20일 연습경기 통해 실전 점검
28일 수원삼성과 개막전
“전술적으로 완성돼가고 있다”

눈보라도 광주FC를 막지 못했다. 남해·목포로 이어지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광주선수단이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 댔다. 15·16일 휴식일을 보낸 선수들은 17일 웨이트를 하면서 간단히 몸을 풀었다. 그리고 18일 광주 금호고를 찾아 필드를 달리고, 전술훈련을 하면서 다시 개막 준비에 나섰다. 전날 광주에 많은 눈이 내렸고, 찬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렸지만 광주의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금호고 경기장이 인조잔디 구장인 만큼 선수들은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었다. 금호고 후배들도 광주 선수단의 도우미로 나서 제설 작업에 나서주면서, 광주는 오후 2시 30분 예정대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러닝을 하면서 워밍업을 한 선수들은 간단한 기술 훈련 뒤 두 팀으로 나눠 미니 게임을 하면서 손발을 뻗었다. 김호영 감독은 “전지훈련을 늦게 시작해서 시간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다. 선수들 분위기도 밝고 사기도 높다”며 “이적한 선수도 많고 영입한 선수도 많은데 그 선수들이 융화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잘 이뤄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성과”고 앞선 전지훈련에 대해 평가했다. 짧은 휴식 뒤 2021시즌을 위해 다시 체비를 시작한 김 감독은 모처럼 모교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고향팀 감독으로 모교를 찾아 훈련을 지휘한 김 감독은 “모교에 와서 훈련을 하니 감회도 새롭고 더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후배들이 눈까지 치워줘서 감사하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준비를 가리며 시즌 준비를 재개한 광주는



광주FC의 김호영 감독(가운데)이 18일 모교인 광주 금호고에서 전지훈련 이후 첫 필드 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9일 새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한 뒤 20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8일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에 맞춰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감독은 “개막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각자가

새롭다. 개막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컨디션을 최상으로 하고 조직 완성도를 높이는 게 남은 시간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팬분들이 개막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서 두 가지 마음일 것 같다”며

“기대와 염려의 마음이일 것 같은데 기대가 현실로 될 수 있게 저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움과 기쁨, 감동을 주는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눈 속 스프링캠프는 처음이야”

변덕스런 날씨에 플랜 B 고심
야수조, 합평 파견 훈련 고려
맷 감독 “여기는 알래스카” 여유

“알래스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8일 취재진과의 자리를 위해 인터뷰실을 찾은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의 인사말이었다. 전날부터 광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챔피언스필드는 이날 하얀 눈에 뒤덮였다. 스프링캠프에서 눈을 만난 윌리엄스 감독은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며 “오늘은 눈싸움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생각이다”고 웃었다. 물론 눈 덕분에 고민은 생겼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의 페이스에 맞춰 차질 없이 훈련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합평 헬리콥터스필드가 플랜B다. 헬리콥터스필드 경기장 2면이 있고, 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인조잔디인 만큼 타자들의 훈련을 위해 ‘합평행’을 고려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눈 치우는 상황을 보고 합평에서의 훈련을 고려하고 있다. 합평으로 가게 된다면 워터구장에서 1군 훈련이 진행되고, 합평 선수단은 원래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타격 훈련을 위해 야수조들이 합평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생겼지만, 투수들은 챔피언스필드를 지킬 예정이다. KIA가 야심 차게 마련한 ‘캠핑용 볼펜’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볼펜에 철골물을 세워 비닐을 덮었고, 내부에 난방기기도 설치했다. 좌측 볼펜에는 무려 7개의 난방기가 한 번에 돌아갈 수 있게 설치되면서 플로리다 못지않은 따뜻한 환경이 조성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



KIA 타이거즈의 타커와 니주환 등 내야수들이 18일 실내 볼펜에서 진행된 수비 훈련이 끝난 뒤 눈 덮인 그라운드를 걸어 이동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 준비도 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투수들이 볼펜에서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다른 훈련도 실내에서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이야기대로 이날 KIA 볼펜 피칭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좌측 볼펜에서 브룩스, 김현수, 정해영, 김재열

이 세 번째 볼펜 피칭을 소화했다. 우측 볼펜에서는 멩덴과 이민우, 임기영과 김유신이 짝을 이뤄 볼펜 피칭을 진행했다. 브룩스와 멩덴은 이날 각각 50개와 45개의 공을 던지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두 선수는 나란히 스트라이크존에 32개의 공을 던졌다. 이날 캠프 시작 이후 처음 KBO 심판진도 경기장

을 찾아 ‘스프링캠프’를 진행했다. 심판진은 볼펜 피칭을 하는 투수들의 공에 맞춰 공을 외치며 볼펜 분위기를 달궜다. 실내에서 타격 훈련을 소화한 야수들도 볼펜으로 걸음을 해 수비 훈련을 진행하는 등 폭설에도 만반의 준비를 한 KIA의 스프링캠프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선수, 22명 늘었다

10개 구단, 1·2군 610명 등록
투수 314명...코치는 13명 줄어

2021시즌 KBO리그에서 610명이 된다. KBO리그 10개 구단이 총 610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지난해 588명과 비교해 22명이 증가했다. 신인 선수는 51명이 포함됐다. 투수가 가장 많은 314명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명이 늘었다. 10개 구단 중 두산, 롯데, 한화(한화)를 제외한 7개 구단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투수를 등록했다. 이어 내야수가 144명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고, 외야수 102명(16.7%), 포수 50명(8.2%) 순이다. 구단별로는 NC와 삼성이 가장 많은 64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NC, 삼성에 이어 KT, KIA, SK, 한화가 각각 62명이다. LG와 롯데는 60명, 키움과 두산이 각각 58명과 56명이다. 지난해보다 NC가 8명, 삼성이 6명 늘어났다. 롯데, 두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3명, 1명 줄었다. 신인 선수는 전체 소속 선수의 8.4%인 51명이다. 지난해 7.8%(46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신인 선수 포지션별 숫자는 역시 투수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내야수 14명, 외야수와 포수가 각각 4명이다. 최근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KBO 리그에서는 최근 4년 동안 2017년 이정후(키움), 2018년 강백호(KT), 2019년 정우영(LG)에 이어 지난해 소병준(KT)까지 ‘고졸 루키’들이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전체 소속선수 등록 숫자는 늘었지만, 코치는 13명 줄었다. 올해 등록된 코치는 총 247명이다. LG가 가장 많은 30명, 키움이 가장 적은 17명의 코치를 등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